

자율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

티이씨건설, 명지대 자연캠퍼스 산학협력관 및 제2예체능관 신축공사현장

취재 연승기 기자 skyway@safety.or.kr



그동안 우수한 안전관리로 이름을 떨치는 건설현장은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현장이었다. 중소현장의 경우 인력 및 재무상태가 대기업에 뒤처지다보니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헌데 최근 이런 인식이 한낱 편견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견 건설사인 티이씨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는 '명지대 자연캠퍼스 산학협력관 및 제2예체능관 신축공사현장'이다.

이곳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자율안전컨설팅 대상현장으로, 체계적인 안전활동과 책임 있는 자율안전관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현장소장을 필두로 모든 현장 구성원이 적극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생 안전'의 모범도 보이고 있다. 이곳이 이처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시공 현장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즉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중견건설사의 저력과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빈틈없는 맞춤형 재해예방활동

현재 이곳 현장의 공정율(4월 기준)은 약 34% 정도로, 철골공사 및 골조공사, 설비·전기공사 등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공정의 경우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중량물 인양 시 발생하는 낙하물사고, 구간단차에 따른 전도사고,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상당하다.

이런 사고를 예방키 위해 이곳은 다양한 재해예방대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기본으로 안전체조 및 보호구 확인 등 TBM 활동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또 사다리, 틀비계, 전동기구 등 다발성작업에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기계·기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수시로 각종 공도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작업의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낙하물 발생 구간의 철골작업의 경우 선제적으로 안전걸이대를 부착하고, 철골 제작 시에는 하부 안전망 설치고리를 제작·설치해 테크플레이트 작업자의 추락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특히 상부 테크플레이트 설치 시에는 안전난간대를 먼저 용접·설치하여, 타설 전 마감 작업자의 안전까지 확보하고 있다.

안전이 곧 회사의 핵심 전략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부서는 타 현장과 다르게 회사의 전략기획팀에 속해있다. 여기에는 아무리 뛰어난 건축물도 안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김동호 대표이사의 무재해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무재해를 이루려는 목적도 있다. 특히 본사는 수시 및 특별 현장점검을 통한 기술전파 및 안전점검으로 우수현장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현장 내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곳 현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안전관리의 중심에 설계·감리회사인 (주)간삼건축이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현장의 경우 설계·감리회사는 포괄적인 감리만 하고 안전의 주축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현대 이곳은 독특하게도 설계·감리사가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주)간삼건축의 정원기 감리단장의 신념 때문이다. 정 단장은 감리사부터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솔선수범을 해야 현장



임직원 모두가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믿고, 현장의 안전활동을 직접 챙기고 있다.

안전의 시작은 정리정돈

이곳이 안전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는 '청결'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다잡기 때문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곳은 정리정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을 마감할 때는 꼭 현장정리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자재 및 시설도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

가족 같은 현장 분위기도 이곳 현장만의 큰 장점이다. 이곳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없다. 그저 함께 하는 동료라는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현장 구성원들 간 이런 우애가 쌓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따뜻한 감성안전이 있다. 이곳은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족구대회 등 여러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우수한 안전관리 성과를 거둔 협력업체에게 아낌 없이 포상을 하고 있다.

이곳 현장의 향후 계획은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안전에 감성을 더한 살아있는 스마트 현장을 구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장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안전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면 이 계획은 분명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mini interview



김덕용 현장소장

함께 소통하는 감성안전 추구

Q. 안전에 대한 소장님의 신념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 근로자 모두

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 또한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늘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관리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려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개개인이 느끼고 실천하는 안전을 추구함으로써,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따뜻한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Q. 무재해를 꿈꾸는 현장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먼저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 늘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건설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모를 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이제는 '근로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감성안전은 무엇일까?'하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통해 그동안 현장의 안전관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이 고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발로 현장을 살피고 두 손으로 근로자의 마음을 감싸는 감동만이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